

資 料

韓國 先史·原史遺蹟出土 漁具例 (2)

崔 夢 龍

(8) 京畿道 楊州郡 楊西面 大心里出土例

楊州 大心里는 周知하다싶이 지난 8月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主管下에 實施되었던 “청평 Dam 工事로 因한 水沒地區 遺蹟調査”의 一環으로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考古人類學科가 이에 參加하여 비록 遺蹟址는 過去 乙丑年이나 壬子年과 같은 大洪水로 因하여 攪亂되어 있었지만 金海式 土器及 風納里式 無文土器를 主流로 하는 三國時代 前段階의 文化로 생각되는 發達한 鐵器時代의 遺蹟址로 밝혀진 바 있다.⁽¹⁾

그러나 여기 紹介하고자하는 漁網錘 6點은 이곳 部落民인 李錫載氏의 蒐集品으로 出土地는 大心里이나 上記 遺蹟址와는 關係가 없고 大心里라는 30餘戶의 조그만 村落을 둘러 싸고 있는 標高 40~70m의 野山에서 表面採集한 것들이며 表面採集品들로 보아 漢江邊 漢沙里나 岩寺里出土와 같은 典型的인 櫛文土器가 出土하고⁽²⁾ 또 精巧한 半月形石刀, 多量의 磨製石斧가 보이고 나중 안 일이지만 洪水 後 들어난 支石墓 四基의 存在로 보아 앞으로의 調査에 따라 좀 더 層位가 確實한 大規模의 遺蹟址가 發見될 可能性이 있다.⁽³⁾

遺物은 다음과 같다.

① 圖 1의 1

赭色中粒質砂岩(Reddish Medium Sandstone)製로 長軸 兩 끝에 끈에 매기 좋도록 打擊을 加해 兩 欠形을 만들고 있으며 長 9.1cm, 幅 4.4cm, 무게 108g으로 漢江邊에서 出土되는 것 중에서 漢沙里出土 石錘(372.5g)例와 같이⁽⁴⁾ 大形에 屬한다. 釣漁에 있어 錘의 무게는 水深이라든가 棲息層, 流速에 影響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現代採集民의 釣用石錘의 무게와 漁種에 關한 資料가 없어서 이웃 나라 日本의 現在 使用中인 낚시꾼의 石錘資料를 實例로 들어보면 海深이 깊은 바다의 鮭(게르치) 用은 約 1kg, 鯛(도미)의 경우 100~360g, 淡水漁인 大形의 피라미는 70~150g, 잉어는 35~70g等

(1) 金元龍·鄭永和·崔夢龍：“楊州 大心里遺蹟 發掘調査報告” 考古人類學科叢刊 第四冊所收 1973(未刊)

(2) 金元龍 “廣州 漢沙里 櫛文土器 遺蹟(歷史學報 14輯 1961.4)及 岩寺里遺蹟의 土器·石器(歷史學報17, 18合輯 1962.6)

(3) 任孝宰 “漢江流域의 考古學 調査研究” 1972, 油印物 p.17

(4) 拙稿 “韓國先史·原史遺蹟出土 漁具例(1)” 古文化 9輯 p.18

의 무게가 나가는 石錘가 사용됨을 알 수 있어⁽⁵⁾ 여기 石錘의 境遇 流速이 比較的 빠른 漢江邊에서 잘 잡히는 피라미, 쏘가리, 눈치, 모래무지 등의 淡水魚가 이에 該當되며 낚시의 形態를 復元해 보면 圖 2와 같이 간단한 一本釣의 낚시가 되지않을까 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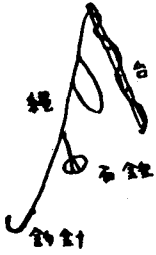


圖 2 釣漁具復元 (渡邊仁氏の 論文으로부터 轉寫)

② 圖 1의 2

灰褐色 硬質土製 漁網錘로 精選된 胎土를 使用하여 미리 본을 떠 長軸과 平行되게 구멍을 뚫은 다음 구워 만든 土錘로서 長 3.2cm, 斷面直徑 2.5cm, 孔의 直徑 0.6cm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1972年 5月 京畿道 驪州郡 占東面 欣岩里所在 無文土器時代에 屬하는 住居址를 發掘하여 住居址 바닥에서 多量의 土錘를 發見하였는데⁽⁷⁾ 여기 出土例와 比較해 보면 胎土質의 差만 些許고 大同小異하여 이와같은 有孔土錘의 例가 無文土器時代로부터 始作하여 時代의인 發展에 따라 三國時代初期의 大形 硬質陶製 漁網錘⁽⁸⁾로 發展해 나갔음을 알 수 있고 現在의 例로 보아 多量의 고기를 한꺼번에 잡기 爲한 投網이나 延繩釣에 使用한 것 같다.

③ 圖 1의 3

斷面八字形土錘로 長橢圓形의 兩側에 縱溝를 깊이 관 것으로 橫斷面 八字形을 보이고 色調는 明褐色이다. 長 5.5cm, 斷面高 2cm, 溝의 깊이 約 0.3cm. 이와같은 例의 始源은 漢沙里 等地의 先史遺蹟 特別히 無文土器時代와 깊은 關聯을 맺고 있는 것으로 推測이 되나 아직 確實한 資料는 없으며 그 以後 같은 系統의 樣式이 原史時代, 三國時代, 李朝時代에 까지 土製, 陶製의 質만 바꾸어 發展되어 오고 있으며 現在使用하고 있는 例를 보면 卽으로 代置되어 그 系統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④ 圖 1의 5

黑青色 硬質土製品으로 分明히 質로 보아 原史時代에 屬하는 斷面 八字形 土錘이며 長 3.3cm, 高 1.9cm, 縱溝 깊이 0.3cm이다.

⑤ 圖 1의 4

歷史時代에 屬하는 小形土錘로서 前者와 같은 系統의 樣式인 깊은 縱溝가 난 斷面 八字形이다. 長 2.1cm, 高 1.5cm, 溝의 깊이 0.3cm이며 色調는 淡黃色에 硬質이다.

⑥ 圖 1의 6

前者와 같은 系統의 樣式으로 兩端이 切斷된 長橢圓形의 兩側에 縱溝를 관 것으로 橫斷面 八字形을 보이며 長 2.3cm, 高 1.1cm, 溝의 깊이 0.2cm이다. 그러나 여기 胎土質은 李朝時代의 粉青砂器이며 이러한 樣式의 系統이 李朝時代에 까지 使用된 좋은 資料라 할 수 있겠으며 時代가 내려오면서 錘는 이와같이 小形으로 變하고 多量의 小形錘가 必要한 延繩釣의 盛行은 漁業技術上의 進歩를 意味하는 것 같다. (1973.1)

(5)渡邊仁 “所謂石錘について, 先史學に於ける 用途の問題” 考古學雜誌 55卷 2號 1969 pp. 36-37

(6)前掲文 (註5) p. 35

(7)金元龍·任孝宰·崔夢龍 “驪州 欣岩里 先史遺蹟 發掘調査” 서울大 考古人類學科叢刊第四冊所收(未刊)

(8)前掲文 (註 4) p.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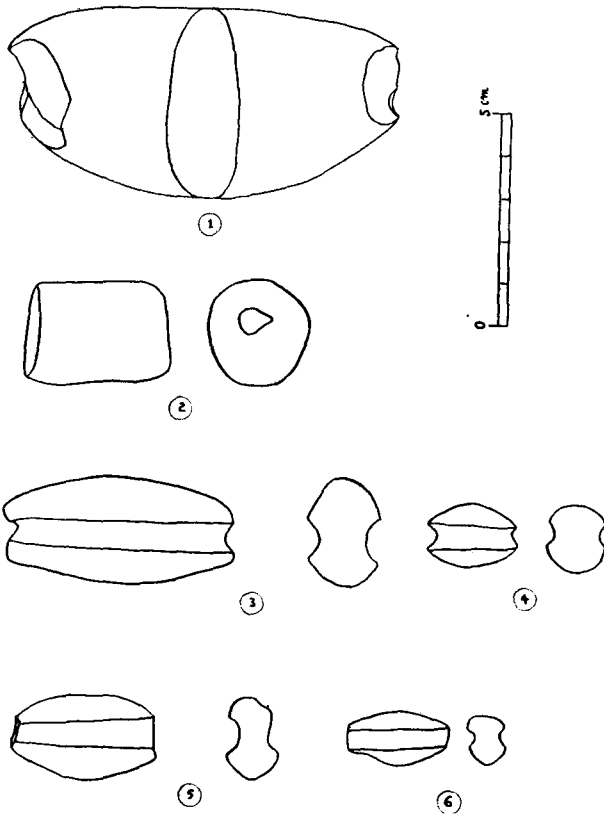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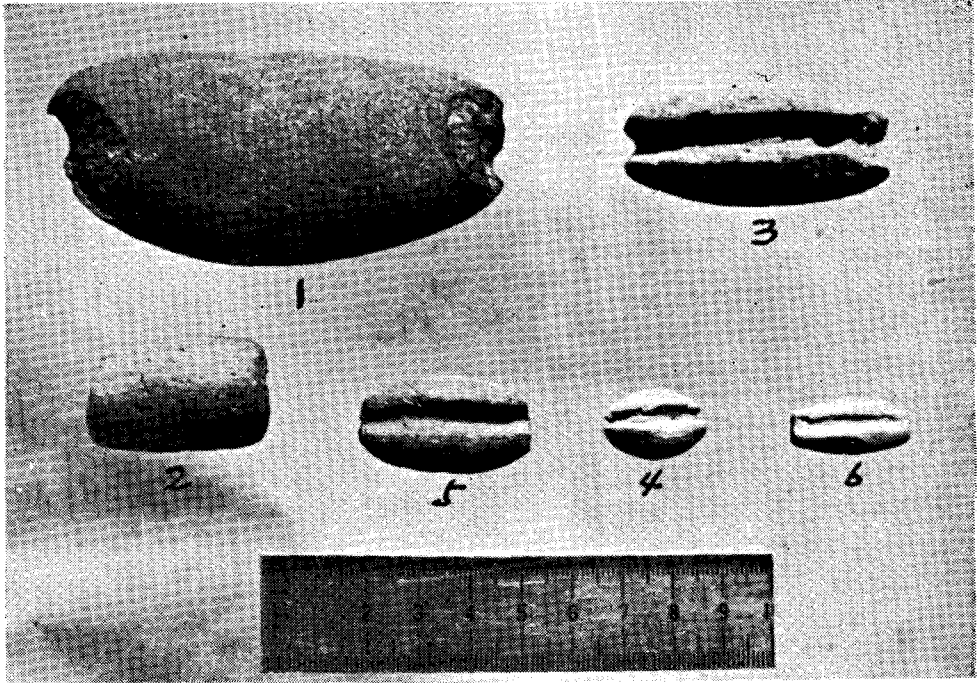


圖 1 楊州郡 楊西面 大心里出土 漁具例